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식품 안전관리 강화 요청

1. 최근 일부 국내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계란 등 사용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제조업체는 원료의 구매 및 검사, 제조·가공 및 완제품 출고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자체와 협회(단체)는 관내 제조·판매업체 및 회원사 등에 해당 사항을 신속히 통보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 계란의 난각 번호를 확인해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 부적합 정보 확인 방법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및 스마트폰 어플 ‘식품안전나라’/ 네이버 및 다음에서도 검색 가능

○ 계란 표면에 표시(난각 번호)가 없는 것은 사용하지 말 것

○ 사용하는 계란의 안전성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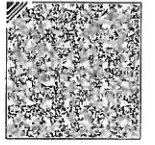
<식품/축산물가공업체>

○ 계란·닭고기 등 원료 입고 시 살충제 등 농약·동물용의약품 검사, 협력업체 관리 강화 및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강화 등

<관련 협회(단체)>

○ 소속 회원사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을 사용·판매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홍보하고, 자율지도원을 통해 위생 점검 강화

2. 이와 관련하여 정부(식약처, 농식품부)에서는 부적합 계란 등 정보를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으니,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안전한 계란이 생산·판매·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방부장관, 부산광역시(보건위생과장), 대구광역시(식품관리과장), 인천광역시(위생안전과장), 광주광역시(식품안전과장), 강원도지사(식품의약과장), 대전광역시(식품안전과장), 충청북도지사(식품의약안전과장), 울산광역시(식품의약안전과장), 경기도지사(식품안전과장), 전라북도지사(건강안전과장), 경상북도지사(식품의약과장), 경상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세종특별자치시(생활안전과장), 전라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서울특별시(식품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건강증진식품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건강위생과장),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온라인쇼핑몰협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조리사중앙회, 대한영양사협회, 한국급식식자재위생관리협회, 한국난가공협회, 한국육가공협회, 식품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업체

주무관	정인권	사무관	최종동	식품안전정책 과장	한상배	식품안전정책	전결 2017. 8. 25.
협조자	농축수산물정 책과장	오정완	농축수산물안 전과장	양창숙	식품안전관리 과장	김명호	국장 윤형주
시행	식품안전정책과-6064	(2017. 8. 25.)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044	팩스번호	043-719-2000	/ misoya78@korea.kr			/ 비공개(8)

국민이 주인인 정부